

한정호의 예술과 정치

서방의 '캔슬컬처' 사태에도 웃고 있는 친 푸틴 예술가들

〈공연 보이콧〉

한정호
공연평론가·에투알클래식 대표



“예술밖에 난 몰라.” 정치권력의 변화나 사회흐름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과연 그럴까. 특히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는 클래식 업계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 세계 클래식 공연예술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함의를 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파헤친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예정됐던 불쇼이 발레단 관련 두 개의 내한 공연이 무산됐다. 불쇼이 발레단 수석 무용수 스페틀라나 자하로바와 군무진이 출연할 예정이던 '모던스' (17-2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불쇼이의 신성' 엘리자베타 코코레바 등 수석 무용수 6인이 등장하기로 했던 '발레엔모델 슈퍼 발레 콘서트' (16-1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가 각각 '관객과 아티스트 안전' '공연변경 신청 심의부결'을 사유로 취소됐다.

두 공연의 연이은 취소 사태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 3월 4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들 공연이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경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같은 달 15일 자하로바 공연이 전격 취소됐다. 그러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문화예술분야 협력이 정치적 개입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논평을 냈고, 발레엔모델 불쇼이 발레 내한을 두고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한국 정부와 민간 반응을 살폈다. 결국 이 공연도 취소에 이르지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시간 19일 대변인 논평으로 “한국의 러시아 문화 말살이 계속되면 가시적 보복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27일에는 미국, 한국 등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인상했다. 29일에는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재한 러시아인 그룹이 5월 예정된 친푸틴 바이올리니스트 스피바코프 내한공연 취소 집회를 잠실에서 열었다.

전쟁 틈타 마린스키-불쇼이 통합 관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에서 '모던스' 상연이 어려운 건 통합 러시아 의원으로 활약한 '친 푸틴' 무용수 자하로바의 전력 때문이다. 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 지지 공개 서한에 서명한 러시아 예술계 인사 511명의 공연 비자 발급을 뒤늦게 불허한다. 자하로바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 비올리스트 유리 바쉬메트, 바이올리니스트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의 서방 공연이 애초에 불가능한 연유다. 반면 우리 정부는 명단에 오른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시차, 자하로바의 공연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연 취소 논란과 외교 공방의 발미를 زد.

'발레엔모델 슈퍼 발레 콘서트' 같은 갈라 형태의 불쇼이 발레단 행사도 러시아 밖에선 노골적 친러 성향의 벨라루스, 중동 균형추 역할의 오만 무스카트에서나 열렸다. '푸틴의 오른팔'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마린스키 극장에 이어 지난해 12월 불쇼이 극장 총감독에 오르자 서방의 불쇼이 보이콧 흐름은 더 선명해졌다. 1956년 이래 불쇼이 발레단을 정기적으로 초대할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는 러-우전쟁 확산 직후 불쇼이 발레단의 2022년 방영(訪演)을 취소했고 재초청 기약도 없다. 1957년 시작된 불쇼이 발레단 일본 투어도 2017년을 끝으로 코로나 팬데믹, 러우전쟁 여파로 중단됐고 재개될 조짐은 없다. 영국 오페라하우스부터 일본 예이전시까지, 지금은 불쇼이 보이콧을 최소한의 윤리적 도리로 본다.

현 시점, 불쇼이 발레단 아시아 투어의 잠재 파트너는 러시아 우방인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국가극원, 홍콩 아트페스티벌 정도다. 그런데 투어가 국가간 교류성 사업으로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국립 예술 단체 개런티는 민간 초청 때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불쇼이 발레단으로선 민간 예이전시가 흥행 목적으로 부를 때 제값을 받는다. 발레엔모델은 국내 매체 인터뷰에서 4년간 불쇼이 발레단 내한 공연권 독점을 밝혔다.

불쇼이 발레단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러시아와 서방간 외교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 올 가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불쇼이 발레단은 현상 타개를 기대할 수 있다. 러-우전쟁 종전을 시사한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 예전처럼 불쇼이 발레단이 투어를 나오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 센터에는 러시아 예술 홍보 업적으로 푸틴이 수여한 러시아 정부 메달을 받은 사업가 수전 레어먼이 거액 후원자로 자리 잡고 있다. 불쇼이 발레단이 미국을 가면, 일본 재팬아츠, 영국 빅터 호호우저 예이전시도 불쇼이 발레단 초청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한-러 관계가 회복돼도 푸틴 정권과 한몸으로 인식되는 게르기에프와의 관계 설정은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 국내 정치권은 게르기에프와 연결에 적극적이었다. 2015년 당시 서방수 부산시장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게르기에프와 만났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게르기에프를 '서울 글로벌 대사'에 임명했다. 2020년대 후반 예상되는 국내 지자체간 오페라극장 건립 경쟁에서 게르기에프는 외교 관계 호전 여부에 따라 다시 인기를 누릴 공산이 크다.

푸틴과 게르기에프는 서방의 러시아 보이콧을 '캔슬컬처'로 규정하면서 상부상조하고 있다. 게르기에프는 지난 3월 크로커스 콘서트장 테러 희생자 추모 공연을 지휘했고, 각지에서 러시아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축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예술인 공개서한에 동참한 블라디미르 우리 불쇼이 총극장장 사표를 수리하고 지난해말 게르기에프를 5년 임기의 신임 총극장장에 임명했다. 서유럽에선 손절당했지만, 게르기에프는 전쟁 덕에 오랜 개인적 염원인 마린스키-불쇼이 극장 통합을 관철했다.

그뿐 아니다. 게르기에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세바스토폴, 칼리닌그라드의 마린스키, 불쇼이 분관 인사와 프로그램 책임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연장 건설 관련 이권은 가스프롬, 스트로이가 스몬타슈 등 친 푸틴 기업이 선점했다. '캔슬컬처'를 비난하며 활동 반경은 자국내로 줄었지만, '친 푸틴' '친 게르기에프' 예술가와 업체는 그리 배고프지 않다. 러시아에선 전쟁 중단 서명에 이름을 올린 예술가들이 '캔슬컬처' 최대 피해자들이다.

서방 압박 받는 이미지 힘입어 앞길 활짝 러-우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과 러시아를 오가며 활동한 거물 음악가의 엇갈린 행보도 주목된



4월 예정됐던 내한 공연이 취소된 '푸틴의 발레리나' 스페틀라나 자하로바. [사진 Vladimir Fridkes]

주변국 침공 지지하는 자하로바 등 불쇼이 무용수 내한공연 잇단 취소

푸틴의 오른팔 지휘자 게르기에프 서방 제재에도 자국내서 승승장구

반 푸틴 유류스키·키신 등 심한 박해 러 공연·예술 전제 군주제 때로 퇴행



1 게르기에프(오른쪽)와 함께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러시아 정부 메달을 수여하는 푸틴.



2 케네디 센터의 거액 후원자 수전 레어먼(오른쪽)에게 러시아 정부 메달을 수여하는 푸틴. [사진 러시아 대통령실]

다. 1972년 모스크바 태생이지만 1990년 독일로 귀화한 블라디미르 유류스키 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음악감독은 거듭된 반 푸틴 발언으로 고국에선 배신자로 찍혔고 서방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유류스키는 최근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예술인은 비정치적일 수 없으며 입장 표명은 정치가 아닌 윤리 문제”임을 주장했다. 크림 분쟁 직후 러시아 정부가 시민권을 제한한 사실도 공개했다.

유류스키는 시민권을 거절했지만, 아테네 출신의 동갑내기 테오도르 쿠렌치스 현 무지카 아테르나 예술감독은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 쿠렌치스는 러-우전쟁 기간, 명시적으로 푸틴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무지카 아테르나가 서방 제재 대상인 VTB은행 지원을 받은 데 대한 입장 요구에 침묵했고, 서유럽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서방에서 폄박받는 이미지에 힘입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마린스키를 승계할 '포스트 게르기에프' 1순위 입지를 확고히 했다. 쿠렌치스도 게르기에프처럼 전쟁을 통해 본진에서 원하는 바를 얻은 셈이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열강을 유지하는 방편은 정치적으로 독재정 회귀, 경제적으로 에너지의 무기화, 군사적으로 나토(NATO) 와해, 문화적으로 게르기에프 역할 극대화로 요약된다. 쿠렌치스는 서방에서 러시아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호평받은 게르기에프의 성공 공식을 따랐고, 지금 태도는 '전략적 침묵'으로 압한다. 게르기에프가 위원을 맡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한국인 입상자나 그와 정기적으로 연주한 협연자, 마린스키와 불쇼

이 소속 단원 역시 현재의 외교 상황에 소신을 표하기 어렵다.

표면적으로 현재 러시아 공연 예술은 슬라브주의를 숭상하는 전제 군주제 시절로 돌아갔고, 이는 게르기에프가 푸틴과 협력해 일군 생태계다. 러시아의 예술적 정체성은 무엇이고, 불쇼이와 마린스키를 장악한 게르기에프와 그의 뒤를 따르는 쿠렌치스가 이를 대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러시아에선 사실상 토론이 불가능하다. 아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러시아 예술가들의 추도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마린스키-불쇼이 통합이 온당하기에 대한 토의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냉전 시절 정치적 박해를 피해 서방으로 이주한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첼리스트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처럼, '반 푸틴' 노선을 분명히 한 유류스키와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이 푸틴 생전에 모스크바로 돌아갈 연주할 날이 과연 올까.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한정호 런던 시티대 대학원 문화정책 매니저먼트 석사. 발레리나 박세은, 축구인 박지성 등 예술 체육계 명사의 예이전시와 문화정책 저문을 담당하는 에투알클래식 대표를 맡고 있다. 월간 객석, 일본 오케스트라연맹에서 일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이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